



서길원 大記者

세상읽기

“민심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바로 오만과 군림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이 바로 오만과 군림의 이미지로 범벅 됐고, 결국 그와 국민 모두의 비극을 초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정치권이 조기대선 국면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조기대선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치러지는 만큼 오는 6월 3일이 유력시된다. 이른바 ‘장미대선’이다.

대통령 파면에 따른 선거라는 특

성상 당연히 ‘정권교체’와 ‘정권유지’가 충돌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대선 후보로 인식돼온 이재명 대표의 1강 체제가 더욱 확고히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일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장관이나,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 호남의 차세대 리더를 꿈꾸는 김영록 전남지사 등 여타 인물들이 나설 수 있으나 대세를 흔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장미대선의 승패… “윤의 반면교사에 달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직전까지도 윤 전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숨죽이고 있던 대선 도전자들이 언뜻 녹으며 풀들이 얼굴을 내밀 듯 군웅할거 시대를 맞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문수 고령노동부장관, 안철수 의원 등이 뚜렷한 강자 없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덕수 총리 영입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마저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고 ‘찬탄반탄’ 논란의 갈등까지 겪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 ‘절대 1강’의 민주당이 훨씬 유리한 입장이지만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2개월 여간 정국의 흐름은 예상치 못한 격랑을 맞을 수도 있다.

한곳에 잠시도 머물지 않고 도도히 흐르는 민심은 어느 순간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후보는 물론 당을 집어삼킬 수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중도 하차한 것도 민심을 거슬렀기 때문이다.

민심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오만과 군림이다. 윤 전 대통령이 국정 스타일이 바로 오만과 군림의 이미지로 범벅 됐고, 결국 그와 국민 모두의 비극을 초래했다.

민주당이 장밋빛이 감도는 장미대선을 앞두고 입 단속에 나선 것도 그런 이유다. 사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00년 정당, 어찌 구겨져꾸’ 하다 민심의 역풍을 맞았다.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치러진 지난 4·2 담양군수 재선거는 호남의 민주당에 대한 인식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됐다. 조국혁신당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까지 지원 유세에 나섰으나 패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16 재보선에서도 영광군수와 곡성군수를 배출하기는 했지만 혁신당과 막판까지 접전을 벌이며 신승을 거뒀다.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을 지탱하는 근간이자 뿌리이지만 일당체제가 장기화 되다보니 오만해지고 군림하려한다는 인식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윤 전 대통령의 탄핵과 동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급부상하고 있는 데다, 민주당을 지지하면 서도 끊임없이 돌파구를 찾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이 적어도 ‘호

남에서는 오만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담양군수 재선거와 관련 “담양의 민심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다. 이번 선거기간 동안 많은 호남의 시민들께서 ‘매번 민주당을 열성적으로 지지했지만 정작 내 삶은 변하지 않았다’는 호된 질책을 내려주셨다”고 고개를 숙인 것도 이러한 민심을 읽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투표상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오만과 군림을 버려야 한다.

물론 정치인에게 오만과 군림을 버리는 일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으나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교훈으로 삼지 못한다면 여당이건, 야당이건 차라리 대선을 포기하라. 장미대선의 승패는 윤 전 대통령의 반면교사에 달렸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산불 예방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임 재 영

/신안소방서 119구조대

봄철과 가을철에 기온은 오르고 습도는 낮아지면서 산림은 그 어느 때보다 불에 취약해진다.

이 시기는 ‘산불의 계절’이라 불릴 정도로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작은 대부분 우리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산불의 약 60~70%는 사람이 낸 불이다.

등산 중 무심코 버린 담배꽂초, 마을 뒷산에서 태운 쓰레기, 논두렁을

정리하려고 지핀 들불 등 처음엔 ‘이 정도쯤이야’ 하는 작은 행동들이 결국 수백만 그루의 나무와 동물의 터전, 그리고 우리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재앙으로 번지고 만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리 모두가 다음의 약속을 함께 실천한다면 산불 없는 안전한 자연을 지킬 수 있다.

첫째 등산 시 인화물질을 절대 소지하지 않는다. 라이터나 버너, 담배 등은 산행 시 가급적 소지하지 말고 특히 담배꽂초를 투기하지 않는다.

둘째 불법 소각을 금한다. 쓰레기나 농업부산물 소각은 산불의 지름길이다. 필요 시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 후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셋째 산불 발견 즉시 신고다. 작은 연기라도 보이면 지체 없이 119 또는 산림청(1688-3119)으로 신고해야 한다. 빠른 대처가 피해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이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

푸른 산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자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산불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예방’이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우리의 자연과 이웃을 지킨다. 산불 없는 대한민국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자!

심폐소생술, 누구나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 승 환

/고흥소방서 현장대응 소방장

심폐소생술이란 호흡 또는 심장 박동이 정지하였을 때 인공적으로 호흡과 혈액순환을 유지해주는 응급처치법이다.

심폐소생술에서의 골든타임은 4분 이내로, 심장이 멈춘 후 1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율은 97%, 2분 이내의 경우 90%에 이른다.

심장이 멈춘 뒤 4분 이상 경과하면

뇌에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환자가 깨어나더라도 2차 손상이 생기거나, 뇌사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목격자의 즉각적인 대응이 사고자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심폐소생술 순서에 대해 알아보자. 첫 째 의식확인용 해야 한다. 환자에게 골절 및 내출혈 같은 식별되지 않은 부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환자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가볍게 친 주먹으로 목과 어깨 사이를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라고 말하며 환자의 의식을 확인한다.

둘째 119 신고요청 및 자동제세동기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요청할 경우 서로에 미루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특정 사람의 옷 색깔, 약세사리 등을 지정하여 요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무한 반복한다.

가슴 압박은 너무 빠르게 시행하지 말아야 하며 가슴이 누르기 전과 후의 깊이가 같아야 한다.

30회를 실시한 후 인공호흡 2회를 전문의료인이 도착하거나, 환자가 깨어나거나, 지체서 더 이상 실시할 수 없을 때까지 실시해야 한다.

심폐소생술은 글로만 읽어서는 한

벽히 익힐 수 없다.

그러므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연습을 통해 박자감과 힘의 세기 바른 자세 등을 익혀야 한다.

최근에는 각 지역의 소방서 및 보건소, 심폐소생술교육단체에서 상시 및 정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꼭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실습해보기를 권장한다.

기사제보 E-mail :honamnews@hanmail.net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www.homae.co.kr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2000년 11월 25일 창간(원간)
등록번호 광주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mae.co.kr

발행·편집인 고계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 장 실 (062) 363-0027
광 고 국 (062) 363-0005
편집국(FAX) (062) 362-0078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인쇄제디엘코리아 (031)466-1000

편 집 국 장 (062) 363-8800
정 · 경 부 (062) 362-6116
사 회 부 (062) 362-6226
문 체 부 (062) 362-6116
지 역 사 회 부 (062) 362-6226

구독료 연달 : 15,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 망 새 언 론 새 천 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기사제보 · 독자 의견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maeil@naver.com

지국안내

총 장.....223-4123
무 등.....224-4188
동 부.....234-4235
학 등.....225-0651
광 천.....374-2120
화 정.....374-3713
금 호.....376-7153
쌍 촌.....371-9584

상 무.....381-5310
서 부.....651-0004
송 암.....362-4102
농 성.....362-4102
진 월.....671-7276
봉 선.....675-5530
중 양.....521-5640
중 흥.....433-1503
양 산.....574-3745
문 암.....521-4270

오 치.....261-9461
문 흥.....261-9462
일 곡.....573-3200
동 문.....525-8994
두 암.....266-1920
첨 단.....971-1920
신 창.....955-0451
월 곡.....941-9174
송 정.....010-5524-3638

지사안내

목 포...010-8718-1234
순 천...010-9656-1383
광 양...010-9656-1383
나 주...010-9193-6322
담 양...010-9067-4076
곡 성...010-5602-1785
구 레...010-8597-0053
보 성...010-3626-4776

화 순...010-2430-5055
영 광...010-9860-5489
완 도...010-5066-4708
장 흥...010-5665-8354
신 안...010-2028-4800
강 진...010-3608-0472
장 성...010-3610-7824

함 평...010-3616-4282
영 암...010-4604-3742
무 안...010-2050-0136
진 도...010-8525-4567
해 남...010-3471-6542
광 산...010-7613-4320
고 흥...010-4644-8383